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대상으로 청산농업협동조합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1개 연안해운선사(청산농업협동조합)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박의 가격에 따라 펀드 자금을 선가의 최소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지원받는 선사는 해당 선박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지난 2월 23일(월)부터 시작된 2026년 제1차 공모 결과, 청산농업협동조합이 최종 선정되어 선가의 6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당초 펀드 지원 대상은 연안여객선이었으나, 연안여객업계와 연안화물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올해까지 조성된 2,490억 원의 펀드 자금으로 총 11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쿤제누비아(목포-제주)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선박 건조 비용 증가로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돕기 위해 현대화 펀드 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선가가 60억 원 이하일 경우 선가의 60%, 6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일 경우 50%, 1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 규모로 펀

드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선가가 150억 원 이하일 경우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일 경우 50%,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지원하는 등 구간별 선가 기준을 2.5배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현대화 의향은 있으나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을 위해 올해 6~7월 중 현대화 펀드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선사별 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선박의 현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위험요소가 높은 노후선박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1-773-5730)
		담당자	서기관	한정수 (051-773-5731)



□ 사업 개요

- (목적)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대체건조를 지원하여 연안해운 안전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
- (법적근거) 「해운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 「선박투자회사법」
- (조성기간 /펀드규모) '16~'30년 / 3,000억원
- (지원대상 /운영기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 (주)세계로선박금융
- (현황) '16~'26년 펀드 2,490억원 조성, 11척 선박 지원(6척 건조 완료)
  - \* '16~'22년까지 1,990억원을 출자하였으나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8.17)에 따라 '24~'29년 출자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
- (주요내용) 정부 출자를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지원\*
  - \* 선박대여회사가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며,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펀드 투자금 상환(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및 선박확보

선가	펀드	금융기관	자부담	운영방식
300억원 초과	30%	산업은행 40% + 민간금융 20%(해진공 보증)	10%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5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40%(해진공 보증)	10%	
150억원 이하	60%	산업은행 또는 민간금융 30%(해진공 보증)	10%	

□ 현재 운항 중인 지원 선박 현황

지원선박	선사명(선박명)	항로	선종	총톤수
1	한일고속 (실버클라우드)	완도-제주	카페리	19,700톤
2	씨월드고속훼리 (퀸메리)	목포-제주	카페리	14,900톤
3	한일고속 (한일골드스텔라)	완도-제주	카페리	19,700톤
4	씨월드고속훼리 (퀸제누비아)	목포-제주	카페리	26,700톤
5	현성MCT (오션비스타제주)	삼천포-제주	카페리	20,500톤
6	고려고속훼리 (코리아프라이드)	인천-백령	쾌속선	1,300톤